

오늘의 주요기사

2020년 05월 28일 (목)

순서	제 목	매체	카테고리	페이지
1	이해조 신소설 '옥중화' 알기 쉽게 풀이	전북도민일보	문화	1
2	전주대HK+연구단, 연구총서 「옥중화주해」 발간	호남제일신문	문화	2
3	신소설'옥중화'알기 쉽게 풀이	전주매일	교육·문화	3
4	전주대 HK+ 연구단, 여덟 번째 연구총서 '옥중화 주해' 발간	전북타임스	문화	4
5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찾아가는 온라인 해외 취업설명회'	전북일보	사람	5
6	전주대, 온라인 해외 취업설명회	전민일보	사람	6
7	전주대-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 해외취업 설명회 실시	전북연합신문	교육	7
8	전주대 찾아가는 온라인 해외취업설명회 성료	전주매일	경제·사회	8
9	전주대, 찾아가는 온라인 해외취업 설명회 '성료'	전북금강일보	문화	9
10	전주대 '온라인 해외취업설명회' 성료	전라매일	사회	10
11	전주대, 온라인 해외 취업설명회 '성료'	삼남일보	종합	11

확대비율: 100%

전북도민일보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014면 문화 11.8 x 12.4cm

이해조 신소설 '옥중화' 알기 쉽게 풀이

전주대 HK+연구단 '옥중화 주해'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 연구단(이하 HK+연구단)이 여덟 번째 연구총서로 '옥중화 주해'를 발간했다. 이 연구총서는 신소설 작가로 잘 알려진 이해조(1869~1927)가 매일신보에 48회에 걸쳐 연재한 '옥중화'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옥중화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정절을 굳게 지켰던 춘향과 그녀가 일편단심 기다렸던 몽룡의 이야기를 그린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태로 한 신소설이다.

이 소설은 판소리계 소설의 변화 양상과 20세기 초엽 활자본 소설의 출판 판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당시 '춘향가강연'이라는 부제처럼 노래로 불리던 춘향가를 활자로 옮겨적어 소리를 근대적 활자로 정착시켰으며, 그 이후 다수



의 춘향전 이본(異本)의 출간을 이끌었다. '옥중화 주해'에서는 이해조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당시 판소리계 소설과 춘향전 이본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현대문에 주해를 달아 상세히 정리하였다. 전주대 HK+연구단 관계자는 "연구단은 다양한 고전과 유교문화 연구를 통해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총서를 통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공동체를 위해 인문학적 토대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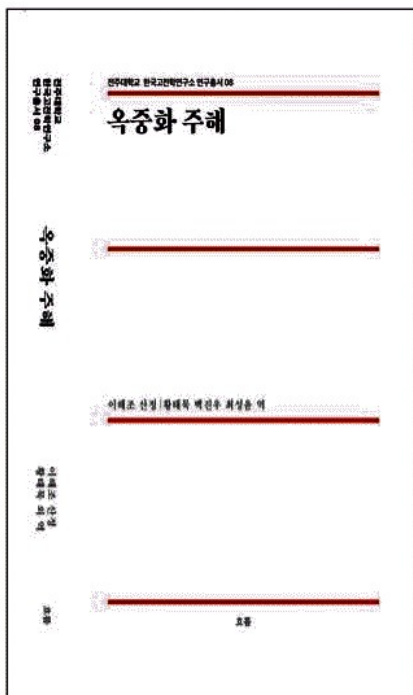
확대비율: 100%

호남제일신문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010면 문화 17.9 x 12.4cm

전주대 HK+연구단, 연구총서「옥중화 주해」 발간

이해조(1869~1927)가 매일신보에 48회 연재한 작품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 연구단(이하 HK+연구단)은 여덟 번째 연구총서「옥중화 주해」를 발간했다.

「옥중화 주해」는 신소설 작가로 잘 알려진 이해조(1869~1927)가 매일신보에 48회에 걸쳐 연재한 작품, 「옥중화」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옥중화(獄中花)」는 ‘감옥 속의 꽃’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정절을 굳게 지켰던 춘향과 그녀가 일편단심 기다렸던 몽룡의 이야기를 그린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태로 한 신소설이다.

「옥중화」는 그 자체로도 판소리계 소설의 변화 양상과 20세기 초엽 활자본 소설의 출판 판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데 ‘춘향가강연’이라는 부제처럼 노

래로 불리던 춘향가를 활자로 옮겨적어 소리를 근대적 활자로 정착시켰으며 그 이후 다수의 춘향전 이본(異本)의 출간을 이끌었다.

따라서 「옥중화 주해」에서는 이해조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당시 판소리계 소설과 춘향전 이본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옥중화」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현대문에 주해를 달아 상세히 정리했다.

전주대 HK+연구단 관계자는 “우리 연구단은 다양한 고전과 유교문화 연구를 통해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총서를 통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공동체를 위해 인문학적 토대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확대비율: 100%

전주매일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012면 교육·문화 14.6 x 13.8cm

신소설 '옥중화' 알기 쉽게 풀이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 연구단, 연구총서 '옥중화 주해' 발간

작가 이해조가 '춘향전' 모태 매일신보에 48회 걸쳐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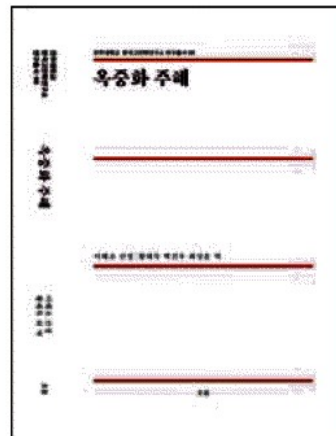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 연구단(이하 HK+연구단)은 여덟 번째 연구총서 '옥중화 주해'를 발간했다.

'옥중화 주해'는 신소설 작가로 잘 알려진 이해조(1869~1927)가 매일신보에 48회에 걸쳐 연재한 작품 '옥중화'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옥중화(獄中花)'는 '감옥 속의 꽃'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정절을 굳게 지켰던 춘향과 그녀가 일편단심 기다렸던 몽룡의 이야기를 그린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태로 한 신소설이다.

'옥중화'는 그 자체로도 판소리계 소설의 변화 양상과 20세기 초엽 활자본 소설의 출판 판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데, '춘향가강연'이라는 부제처럼 노래로 불리던 춘향을 활자로 옮겨적어 소리를 근대적 활자로 정착시켰으며, 그 이후 다수의 춘향전 이본(異本)의 출간을 이끌었다.

이에 '옥중화 주해'에서는 이해조의 작품 세



계뿐만 아니라 당시 판소리계 소설과 춘향전 이본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옥중화'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현대문에 주해를 달아 상세히 정리했다.

전주대 HK+연구단 관계자는 "우리 연구단은 다양한 고전과 유교문화 연구를 통해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총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공동체를 위해 인문학적 토대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확대비율: 80%

전북타임스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008면 문화 23.8 x 8.2cm

전주대 HK+연구단, 여덟 번째 연구총서 '옥중화 주해' 발간

이해조의 작품 세계와 판소리계 소설·춘향전 이본 동시 분석 가능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 연구단(이하 HK+연구단)은 여덟 번째 연구총서, '옥중화 주해'를 발간했다.

'옥중화 주해'는 신소설 작가로 잘 알려진 이해조(1869~1927)가 매일신보에 48회에 걸쳐 연재한 작품, '옥중화'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옥중화(獄中花)'는 '감옥 속의 꽃'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정절을 굳게 지켰던 춘향과 그녀가 일편단심 기다렸던 몽룡의 이야기를 그린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태로 한 신소설이다.

'옥중화'는 그 자체로도 판소리계 소설의 변화 양상과 20세기 초엽 활자본 소설의 출판 판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데, '춘향가강연'이라는 부제처럼 노래로 불

리던 춘향가를 활자로 옮겨적어 소리를 근대적 활자로 정착시켰으며, 그 이후 다수의 춘향전 이본(異本)의 출간을 이끌었다.

따라서, '옥중화 주해'에서는 이해조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당시 판소리계 소설과 춘향전 이본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옥중화'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현대문에 주해를 달아 상세히 정리

했다.

전주대 HK+연구단 관계자는 "연구단은 다양한 고전과 유교문화 연구를 통해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총서를 통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공동체를 위해 인문학적 토대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